

주제가 명확한 글을 쓰는 일은 넓고 확실한 입구로 들어가 지독하게 꼬인 통로를 지나느라 진을 다 쏟아낸 후, 간신히 몸 하나 빼내는 일과 다름없다. 특히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형상화 시켜야 하는 동화는 더욱 힘든 일이다. 주제에 얽매이면 기존의 작품과 다를 바 없기 십상이고 주제를 녹여내지 못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이 되어버린다. 그건 작품을 심사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주제의식을 어떻게 형상화 했는지 살펴보면서도, 기존의 5.18 작품과 다른 목소리를 찾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49편의 5.18신인문학상 접수 작품을 읽어가며 동화 본연의 목소리에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상당히 많은 작품들은 아직 '동화'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부족해보였다. 어린이 독자들이 읽도록 쓴 이야기가 아니라, 심사위원에게 읽히기 위해 쓴 글이 많았다. 심사를 위한 작품이라도 독자는 어린이다. 어른의 문법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나열한다고 동화가 되지 않는다. 가르치듯 들려주는 작품들이 많았고, 틀에 얽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작품들도 많아 안타까웠다.

본심에는 총 3편이 거론되었다. '어린이법 9조 2항'과 '소문' 그리고 '도깨비 방'이다.

'도깨비 방'은 5.18로 인해 깊은 고통 속에 빠져 골방에 숨어버린 아빠를 도깨비 방에 숨어 있는 도깨비로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그 시대의 상처를 어린이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시도가 좋았다. 다만 긴긴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아빠의 상처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이 무리가 있고 작위적이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무거운 주제를 동화적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심한 것에는 칭찬을 보낸다.

'어린이법 9조 2항'은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경계가 아주 자연스러웠다. 어른과 아이들의 대결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통쾌할 만한 재미까지 확보했다. 또한 '사과'라는 소재를 통해 보여준 어른과 아이들의 입장 차이를 잘 대비시켰다. 5.18정신의 형상화와 확장성을 생각하면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발칙한 상상력이 돋보였고 문학적인 성취도도 높았다.

'소문'은 80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어린이의 심리를 따라가며 풀어쓴 것이 인상적이었다. 버스기사였던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엄마가 찾아 나선다. 집에 남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며 흥흥한 소문을 계속 듣게 된다. 실제 죽음을 목도하지 않았음에도 소문만으로 충분히 고통에 처한 주인공의 심리를 그 시대의 아픔과 함께 잘 표현하고 있었다. 직접 보지 않았고, 겪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광주의 이야기를 어린이의 시각으로 차분하게 풀어나갔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고심 끝에 '소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5.18문학상이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 하나였다. 당선자는 이제 그 너머의 것을 표현하고 쓰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다.

심사를 마치고 내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에 빠지는 밤이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다른 분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심사: 동화작가 임지형, 이상권